



이토가 카즈오의 「생산성」에 관한 대화 : 다영역 관점에서의 규명<사회복지학·중증아동 교육학·교육 인간학·문화인류학>

渡部, 昭男 ; 쿠니모토, 신고 ; 가네마루, 아키토시 ; 하치야, 토시타카 ; 우나이, 아카리 ; 몬젠, 아야키 ; NAKANO, Lynne ; 나가오카, 미사키

(Issue Date)

2021-08-16

(Resource Type)

research report

(Version)

Accepted Manuscript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76307>



이토가 카즈오의 「생산성」에 관한 대화

—다영역 관점에서의 규명<사회복지학·중증아동 교육학·교육 인간학·문화인류학>—

기획자·사회자:와타나베 아키오(오사카세이케이대학/전 고베대학/돗토리대학· 명예)

쿠니모토 신고(돗토리단기대학),가네마루 아키토시(고베쇼인여자학원대학)

발표자: ○하치야 토시타카(미마사카대학), ○우나이 아카리(고베쇼인여자학원대학),

○몬젠 아야키(카나자와세이로대학),Lynne NAKANO[번역:나가오카 미사키]

(홍콩중문대학)

일본 교육학회 긴키지역 주최 온라인 기획 「이토가 카즈오 사상과 실천」 (2021.3.30) 에서는 이토가 카즈오 연구회 편저 「이토가 카즈오 연구 신전개 :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삼학출판 2021)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 3 명이 등단하여 문화인류학,사회복지학·복지사회학, 헌법학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거기에서 언급된 테마 「가능력」 「케어」 「생산성」 「공생」 「존엄」 중 이번에는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영역의 집필자 4 명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더 나아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1. 사회복지 원리로써 중증 장애 아동 생산성: 하치야 토시타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인권을 기반으로 당사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시설이나 서비스는 수단이며,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상과 이념이 매우 중요하다. 이토가는 중증 심신장애 아동 시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증 아동의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아무리 무거운 장애가 있어도 「인간으로 태어나 그 나름의 인간이 되어가는 자기실현을 하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생산성을 인정하는 사회는 중증 장애 아동에 의해서 생산 (실현) 된다는 이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라는 용어는 효율적으로 재화를 생성한다는 의미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노동능력(생산력)을 갖추어 그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요구된다. 이 전제에 의하면 중증 장애 아동은 예외적인 존재로서 일반사회와는 다른 원리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 이토가의 고민은 중증 장애 아동의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위한 근거와 인간의 존재로서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이론적으로 양립시키는 것이었다. 그 방법의 하나로써 생산의 의미를 확대하여 모든 인간은 「생산성」을 소유한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중증 장애 아동의 가치와 존재의미를 확립하였다. 동시에 사회에 사로잡혀 있는노동능력(생산력)으로 규정된 인간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모습과의 의미에 대해서 되돌아 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2. 같은 시기에 제시한 두 개념 「가로(가로축)의 발달」과 「중증 아동의 생산성:우나이 아카리

「가로(가로축)의 발달」과 「중증 아동의 생산성」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이토가는 같은 시기에 두 개념을 제시하였다. 둘째, 두 개념을 제시함에 있어서 이토가 스스로 가치를 전환시켰다.셋째, 두 개념에 관해서 논할 때 이토가는 「자기실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첫번째와 관련해서 이토가가 「가로(가로축)의 발달」과 「중증 아동의 생산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66 년이다. 중증 아동의 요육을 시작한 비와코학원(중증 장애 아동시설 1966 년)에서 요육에 대한 방향성을 발견하여 제 1 비와코학원과 제 2 비와코 학원을 병설하는

시기이다. 두번째와 관련해서는 「발달」과 「생산」에 대해서 이토가는 오미 학원의 실천을 시작한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전반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의 오미 학원·비와코 학원의 실천을 통해서 전환시켜 나갔다. 세번째와 관련해서 이토가는 「이 아이들은 아무리 무거운 장애를 갖지고 있어도, 누구와도 바꿀수 없는 개성적으로 자기실현을 하고 있다」「그러한 자기실현이야말로 창조이고 생산이다」고 하였다. 「가로(가로축)의 발달」「중증 아동의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자기실현」이라는 개념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다. 중증 아동과 관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전환(자신과의 「대결」)시키고, 196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중증 아동의 「자기실현」을 사회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개념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3. 교토학과 교육학 관점에서 규명해보는 「생산성」 : 문제 이야기

이 보고는 이토가의 「개성적인 자기실현」 과정을 의미하는 「(중증 아동의)생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상적 영향을 주었던 교토 학파의 미학/교육학자 키무라 모토모리(1895-1946)의 「형성성(形成性)」이론을 바탕으로 찾고자 한다. 키무라의 「형성」 개념은 사상의 중심이었던 「표현」과 병행하는 키워드이지만 특히 교육을 논할 때 초점화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의도성과 계획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에 대해 논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형성」 개념, 또는 초기 미학 철학이론의 바탕이었던 「만드는」 철학으로부터 이토가의 「생산성」에 관한 기술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번째 논점은 키무라의 「형성」론이 신체성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표현」을 나타내는 매개로서 신체 구조나 그 기술성, 도구성의 작용을 고찰한다. 두번째 논점은 그러한 신체의 「형성성」이 실제 도구, 물건과 접해져 연동해 확산하는 순간에 「만드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이 교차 길항한다. 여기서는 키무라의 스승인 니시다 기타로(1870~1945)의 신체론을 참조하여 인간이 「신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표현적 세계」 관점에서 「생산성」이라는 현상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망 아래 본 보고는 요육 기록 영화 「새벽이 오기 전의 아이들」(1968년), 이토가 말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4. 「생산성」에 관한 이토가 카즈오 사상과 누스바움의 서양 정치 철학 비교 : Lynne Nakano

본 보고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문화·정치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생산성」에 관한 위치 설정에 대해서 이토카 카즈오와 시카고 대학 공로 교수(법학·윤리학) 마사·C·누스바움의 어프로치 비교하고자 한다. 누스바움(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이토가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오미 학원 20년 바람』 일본 방송 출판 협회 [1965] (2003))을 보면, 생산성에 중점을 둬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보장과 서포트를 제공하는 사회 실현이 어려워질 때 양자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누스바움, 이토가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생산성에 대한 우려를 논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회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온화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토가는 평생 타인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나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누스바움은 생산성은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의존, 인간으로서의 요구와 약점도 본래 인간이 경험하는 존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누스바움, 이토가 모두 본래 인간은 배려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배려는 교육을 통해 키워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배려와 도덕에 근거한 인간의 경험에 의한 사고방식의 변화로부터 혁신적이고 사회의 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홍콩정부·대학교육자조위원회 University Grants Committee) 연구자조국 (Research Grants Council)
(프로젝트 번호 14609818) 조성에 의한 연구임)